



“작지만 강한 GIST,
과학기술 정예인력을
키우겠습니다.”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사는 매년 세계의 대학 평가 순위를 게재한다. 각 학교가 낸 학문적 성과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상호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GIST는 2012년 QS 평가 교수 1인당 피인용 수 부문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규모가 작고 아직 역사가 짧지만 연구의 질은 국내 어느 학교보다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GIST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다. 3년 전까지도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만 운영한 탓이다. 사실 GIST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단기간에 이 수준에 이르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2010년 교수 1인당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 학술지 논문 발표에서 국내 대학 중 1위를 하는 등 작지만 강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학부과정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GIST의 미래, 지난 6월 새로 부임한 김영준 총장으로부터 들어본다.

GIST가 이번에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거둔 성과에 축하드립니다. GIST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IST의 성장 비결은 무엇보다 목표가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GIST는 규모가 작은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과학기술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 주력분야를 5개로 한정하고 역량을 집중했지요.

이는 규모는 작지만 이공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이하 칼텍)을 본딴 발전전략입니다. 칼텍은 천체물리학과 우주공학 관련 분야에 집중한 결과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지요.

칼텍처럼 GIST도 소수 정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도 학연이나 지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력만을 고려하

여 교수진을 구성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기획이나 보여주기식의 연구도 지양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지요.

지방에 있다는 여건상 지역과의 교류도 많을텐데요, 지역사회에서 GIST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GIST가 탄생할 때부터 광주 시민들의 호응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GIST의 주요 연구분야도 의료시스템, 광산업과 같은 지역경제와 연관성 높은 분야를 다루었지요. 최근에는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고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학으로서도 연구성과가 실제 응용까지 연결되어야 의미있는 실적을 내고 존재가치를 입증하여 발전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하지요. GIST도 광주시와 함께 연구전략을 짜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실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상호 신뢰도 두텁습니다.

GIST의 연구성이나 국제적 활약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칼텍과 연구교류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연구교류를 하는 칼텍은 GIST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이

루어지기로 유명하지요. 구성원의 수가 적으니 연구원들이 서로 친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융합연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실력 위주라 미국 명문대라면 다 있는 기부입학 등의 제도도 없지요.

협력 대상도 까다롭게 고르는 것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대학들이 칼텍에 교류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연구 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나 GIST는 순조롭게 연구교류 협정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연구 철학이 서로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GIST에서 1명, 칼텍에서 1명씩 교수들을 짝지어 연구팀을 구성하고 공동 연구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4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는데 칼텍에서는 18명이나 제안서를 제출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칼텍처럼 작지만 강한 대학이 GIST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을 잘 하는 인재를 길러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으로 취임 후 연구활동을 중시하는 행보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리스크가 크지만 타 분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들은 연구자를 신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기다려서 얻은 성과입니다. 창조적 실패를 용인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 차세대 연구자를 키워내는 것도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도 총장 취임 후 논문 숫자보다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의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현대는 과학자들이 연구실에만 갇혀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연구자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대중은 물론, 정치권과도 소통해야 융합연구도 활성화되고 이공계가 살아나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일반 교양 교육이 더 절실하기도 합니다. 폭넓은 시야가 있어야 장기적 안목으로 다양한 융합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은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보다 논문 실적으로 성과를 판단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연구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는 만큼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것입니다. **F**

GIST는 최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칼텍)과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칼텍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쌍벽을 이루는 과학기술 특화 대학이다. 지난 10월 11일, GIST를 방문한 칼텍의 장-루 샤모우 총장과 김영준 총장이 MOU 체결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